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 기본 어휘 목록: 개발과 적용*

이현우 (인하대학교)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License,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Received: December 24, 2022

Revised: January 13, 2023

Accepted: January 27, 2023

Hyunoo Lee (single author)
Professor, Inha University
Tel: 032-860-7851
hylee@inha.ac.kr

* This work was supported by
INHA UNIVERSITY Research
Grant.

ABSTRACT

Lee, Hyunoo. 2023. *The Basic Vocabulary List of the 2022 Revised National Curriculum of English: Development and application*. *Korean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23, 59-88.

This paper outlines the major characteristics of the Basic Vocabulary List (BVL) of the 2022 Revised National Curriculum of English (RNCE),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revisions made to the BVL of the 2015 RNCE. Some important features of the BVL of the 2022 RNCE are the following. First, the list is made up of 3,000 words, assuming the basic lexical unit to be a word family that consists of a headword and all its inflectional variations and a limited number of derivative forms, if any. Second, based on the recent findings that EFL learners have a shallow knowledge of word derivation, the list allows forms derived only by 36 derivational affixes to be included in word families. Third, the 3,000 words in the list are classified into three groups: the first group of 800 words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second group of 1,200 words for middle school and first-year high school students, and the third group of 1,000 words for second- and third-year high school students. Along with some further minor revisions, the ways in which the three revisions have been made will be shown. The paper concludes with some pedagogical implications of the BVL of the 2022 RNCE.

KEYWORDS

2022 Revised National Curriculum of English, basic vocabulary list, size and depth of vocabulary knowledge, derivational affix, coefficient of usage

1. 서론

교육부는 2022년 12월 22일에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인재의 육성을 목표로 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확정·발표하였다. 이 교육과정의 핵심은 미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 및 기초소양 함양, 학생의 자기주도성, 창의력과 인성 개발을 위한 개별 맞춤형 교육, 학교 현장의 자율적인 혁신 및 유연한 교육과정, 학생의 삶과 연계한 깊이 있는 학습을 위한 교과 교육으로 요약할 수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2024년부터는 초등학교 1~2학년에, 2025년부터는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에, 2026년부터는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2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에, 그리고 2027년부터는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에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영어교육이 초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됨을 고려할 때,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이 2025년부터 적용되는 것을 뜻한다. 이에 따라 2023년에 이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한 교과서에 대한 검정이 이뤄지고,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가 1년간의 수정 및 교정을 거쳐 2025년에 초등학교 3학년,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에서 처음으로 사용될 것이다.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은 현행 교육과정에서 취하고 있는 듣기-말하기-읽기-쓰기의 언어 기능별 영역 분류를 영어 지식 정보의 이해와 표현의 2개 영역으로 개편하였다. 주형미, 김미경, 김성혜, 배주경 외(2022)에 따르면, 이런 개편은 “디지털 리터러시, 멀티모달(multi-modal) 리터러시 사회에서 언어 네 기능 간 경계가 불분명해지면서 불가피해졌을 뿐만 아니라, 현실 생활에 적용 가능한 학습을 지향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에 따라 영어 학습에 목적성을 부여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변화에도 2개 영역의 성취기준은 이전 교육과정에서 정한 언어 기능별 성취기준을 실질적인 면에서 대부분 반영하고 있으며, 학생의 인지적, 언어적, 정서적 발달 과정과 수준 그리고 학교 급간 연계를 고려하여 성취기준을 개발한 점도 이전 교육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은 또한 학생의 삶과 연계된 실생활 중심의 영어 의사소통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어, 고등학교의 ‘공통 영어’ 과목을 통해 영어의 기초적인 소양을 함양한 다음, 진로에 따라 ‘직무 영어’, ‘영어 발표와 토론’ 등의 진로 선택 과목과 실생활에서 영어를 활용할 수 있는 ‘실생활 영어 회화’, ‘미디어 영어’, ‘세계문화와 영어’의 융합 선택 과목을 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육과정의 목표 및 지향점이 달라지게 됨에 따라,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이 현행 교육과정과 내용과 내용 체계 면에서 적지 않은 점에서 달라져 보이지만 실질적인 영어교육의 변화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주는 것은 교육과정의 기본 어휘 목록과 관련 지침이다. 교육과정의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이 부분이 많은 수정과 보완을 거쳤기 때문에, 2023년에 검정 심사를 받을 영어 교과서의 제작과 이들 교과서로 이뤄지는 이후의 교수·학습 및 평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논문은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기본 어휘 관련 지침(이후 2022 기본 어휘 지침이라 함)이 어떤 내용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는지를 상세히 기술하고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이 지침이 전제하고 있는 내용을 설명함으로써 2025 개정 영어 교과서의 개발 및 이를 토대로 하는 교수·학습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영어 기본 어휘 목록

20세기 후반부터 학생들이 가급적 어휘 학습의 부담을 덜 느끼면서 영어를 용이하게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영어 원어민 화자가 가장 흔히 사용하는 영어 어휘를 기본 어휘로 정하고 이들 어휘로 이해 가능한 자료를 개발하여 초보 학습자의 영어 능력 향상을 꾀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히 일어났다. 이런 목적 하에서 개발된 대표적인 기본 어휘 목록에는 West(1953)의 *General Service List(GSL)*, Nation(2017a)의 *BNC/COCA Level 6 word family lists*, Coxhead(1998)의 *Academic Word List(AWL)*, Gardner와 Davies(2014)의 *Academic Vocabulary List(AVL)*, Browne, Culligan과 Phillips(2013)의 *The New General Service List(NGSL)*, Brezina와 Gablasova(2015)의 *New General Service List(new-GSL)*, 등이 있다.

기본 어휘 목록의 개발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초보 학습자를 위한 적정 기본 어휘의 수가 무엇인지, 기본 어휘 목록에서의 기본 단위가 무엇인지, 그리고 ‘가장 흔히 사용된다’는 기본 어휘를 어떻게 선정해야 하는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초보 학습자를 위한 적정 기본 어휘 수의 문제는 초보 학습자의 어휘 지식의 크기(size)와 관련된 문제이다. 이에 관해, Laufer(1992)는 L2 어휘 지식 수준이 3,000 단어 군(word family)이 안 되면 일반 지적 능력과 상관없이 제대로 된 L2 읽기가 불가능하고, 어휘 지식 수준이 5,000 단어 군 이상이면 일반 능력과 별개로 L2 읽기가 만족스럽게 이뤄지고, 어휘 지식 수준이 3,000~4,000 단어 군 수준이면 L2 읽기가 일반 능력에 지장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였다. Coady(1997)는 L2 학습자의 어휘 습득이 읽기를 통해서 가능하지만, 문맥으로부터 새 어휘를 배울 수 있는 L2 읽기 수준은 L2 어휘 문지방(threshold)을 넘어야만 가능하다는 역설을 피력하면서, 이 문지방이 3,000~5,000 단어 군 수준이라고 하였다. Nation과 Waring(1997)은 온전한(unsimplified) 영어 텍스트의 대부분이 소수의 고빈도 단어로 되어 있으므로¹ 기본적인 읽기에 3,000~5,000 단어 군이, 말하기와 쓰기에 2,000~3,000 단어 군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Na와 Nation(1985)은 온전한 텍스트에서 문맥적 정보를 통하여 단어를 배우려면 최소한 텍스트의 95%를 포괄하는 3,000 단어 군 수준의 어휘를 알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상의 논의는 한국인 영어 L2 학습자와 같은 학습자를 위해서 최고빈도 2,000~3,000개의 단어 군을 기본 어휘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어휘를 세는 단위로 단어 군이 모든 기본 어휘 목록에서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기본 어휘의 단위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기본 어휘 목록의 표제어 수가 같다고 하더라도 학습자가 우선적으로 익혀야 한다고 여겨지는 단어 유형(word type)의 수가 상당히 달라지므로, 기본 어휘를 세는 단위를 무엇으로 하는지의 문제는 신중히 다뤄야만 하는 문제이다.

단어 군을 어휘의 기본 단위로 하는 기본 어휘 목록은 Bauer와 Nation(1993)의 연구를 토대로 하는데, 이들은 Level 3~Level 6으로 분류된 84개의 파생 접사에 의해 만들어진 파생어만을

¹ Carroll, Davies와 Richman(1971)은 최고빈도 2,000 영어 단어 군이 어떤 영역의 텍스트에서도 단어 출현형(word token)의 80% 정도를 확실히 차지한다고 하였다.

단어 군의 일원으로 보고 있다. 단어 군 대신에 사용되는 어휘 단위로는 사전등재형(lemma)과 상(上)사전등재형(flemma)이 있다. 사전등재형은 표제어와 표제어와 동일한 품사의 모든 굴절형을 대표한다. 예를 들어, 명사 *host*는 *host's*와 *hosts*라는 굴절형을 가지고 있고, 동사 *host*는 *hosted*, *hosting*, *hosts*를 가지고 있다. 정의에 따라, *host*(n)는 *host's*와 *hosts*를 대표하고 *host*(v)는 *hosted*, *hosting*, *hosts*를 대표한다. 반면에, 상사전등재형은 둘 이상의 품사로 사용되는 표제어가 있을 때 모든 품사의 굴절형을 포함한다. 따라서 상사전등재형 *host*는 *host*(n), *host's*, *hosts*, *host*(v), *hosted*, *hosting*, *hosts*를 포함한다.

앞서 언급한 대표적인 영어 기본 어휘 목록 중에서 어휘의 기본 단위로 단어 군을 택한 것은 *GSL*, *BNC/COCA Level 6 word family lists*와 *AWL*이고 사전등재형을 택한 것은 *AVL*, *NGSL*, *new-GSL*이다. 3장에서 논할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기본 어휘 목록은 대체적으로 단어 군을 어휘의 기본 단위로 하고 있으나 일부 상사전등재형도 혼용되어 있는 형태이다.

영어 L2로 배우는 일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McLean(2017)은 표제어를 알고 있는 학습자가 보통 굴절형을 알고 있지만 파생 변이형에 대한 수용적 지식 수준이 낮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상사전등재형을 어휘의 단위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주장에 대하여, Stoeckel et al.(2020)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더욱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들은 영어를 L2로 학습하는 일본 대학생들이 둘 이상의 품사로 사용되는 표제어가 있을 때, 한 품사의 굴절형을 알고 있음에도 다른 품사의 굴절형을 56%만 알고 있고, 실험에 쓰인 12개의 어휘 사이에 상당한 편차를 보인다는 것을 밝히면서, 사전등재형이 어휘의 기본 단위로 더 적합하다고 주장하였다.

기본 어휘 목록이 포함하는 단어 유형의 수가 같다면, 어휘의 기본 단위를 단어 군으로 할 때 표제어의 수가 가장 적을 것이고, 어휘의 기본 단위를 사전등재형으로 할 때 표제어의 수가 가장 많을 것이다. 전자와 후자의 방법은 또한 다른 면에서 큰 대조를 이룬다. 전자는 표제어와 그 파생어의 관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장점이 있지만, 파생형이 표제어보다 더욱 흔히 사용되는 경우가 있고(Brown 2018), 영어 표제어를 알고 있지만 파생형을 54%만 이해하고 있는 일본 대학생의 경우가 예시하듯이(McLean 2017), 기본 어휘 목록이 L2 영어 학습자의 어휘 지식의 깊이(depth)를 과대평가하여 반영할 위험성이 높은 단점이 있다. 반면에, 후자는 전자의 단점을 피할 수 있지만 각 파생어를 일일이 익혀야 하는 것으로 제시하는 단점을 안고 있어 학습자가 표제어를 이해하고 있을 때 접두사 *un-*, *re-*, *in-*, *dis-*에 의해 파생된 변이형의 의미를 약 80%까지도 추론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White, Power and White 1989)나 영어 능숙도가 일정 수준에 도달한 L2 학습자가 흔히 사용하는, 규칙적인 접사를 생산적으로 사용하고 이들에 의해 만들어진 파생어를 개별적으로 학습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다는 주장(Bauer and Nation 1993)과도 배치된다.

앞서 언급한 기본 어휘 목록들은 거의 동일한 방법과 절차에 의해 기본 어휘를 선정한 것으로 보인다. Leech, Rayson과 Wilson(2001)을 따라, 거대 코퍼스에서 어휘가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빈도), 백만 단어 출현형으로 나누어진 하위 코퍼스 중에서 어휘가 한 번이라도 출현한 하위 코퍼스가 몇 개인지(범위), 이들 하위 코퍼스에 어휘가 얼마나 균등하게 출현하는지(분산)를 조사한 후, 각 어휘의 빈도에 분산을 곱하여 얻은 용례지수(coefficient of usage)에 따라 어휘들의 순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가장 흔히 사용되는’ 어휘를 정한다(Gardner and Davies 2014, Juilland and Chang-Rodriguez 1964). 이런 선정 방법과 절차에 따라 만들어진 기본 어휘 목록

중에서, 예를 들어, *GSL*은 5백만 단어의 영어 코퍼스에서 용례지수가 가장 높은 2,000개의 영어 단어 군을 추출하여 만든 것인데, Nation(2001)은 이 목록의 텍스트 포괄률이 문어는 약 80%이고 구어는 약 90%라고 한다. 120억 단어가 넘는 4개의 코퍼스 Lancaster-Oslo-Bergen Corpus(LOB), The British National Corpus(BNC), BE06 Corpus of British English(BE06), EnTenTen12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new-GSL*은 용례지수가 가장 높은 2,494개의 사전등재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출처 코퍼스의 80.1~81.7%를 포괄한다. 4억2천5백만 단어의 COCA(Davies 2012)의 학술적인 하위 코퍼스를 토대로 만들어진 *AVL*은 용례지수가 가장 높은 3,000개의 사전등재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억2천만 단어의 COCA 학술 자료와 3천3백만 단어의 BNC 학술 자료의 14%를 포괄한다.

3.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기본 어휘 관련 지침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기본 어휘 목록은 대체로 2장에서 논한 기본 어휘 선정의 일반적인 방법과 절차에 따라 개발되었다. 이문복과 신동광(2015)에 따르면, 국내외의 대표적인 기본 어휘 목록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고빈도 어휘를 기본 어휘로 한 2009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기본 어휘 목록과 달리,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기본 어휘 목록은 가급적 코퍼스와 코퍼스에서의 여러 척도 수치를 활용하여 기본 어휘를 선정하려고 하였다. 이런 점에서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기본 어휘 목록은 이전 교육과정의 기본 어휘 목록보다 어휘 선정의 타당성 면에서 진일보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개선에도 불구하고 이 기본 어휘 목록과 관련 지침은 크고 작은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기본 어휘 목록 개발 절차와 어휘 선정 기준을 간략히 살펴보고 기본 어휘 관련 지침의 기술적이고 이론적인 문제점을 논하고자 한다.

3.1 기본 어휘 목록 개발 절차와 어휘 선정 기준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기본 어휘 선정을 위해, 먼저 8개의 해외 코퍼스, Freiburg-Brown Corpus(미국 문어), Freiburg-LOB Corpus(영국 문어), Australian Corpus of English(호주 문어), British National Corpus Written Sampler(영국 문어), Wellington Written Corpus(뉴질랜드 문어), Corpus of Contemporary American English Spoken Sampler(미국 구어), British National Corpus Spoken Sampler(영국 구어), Wellington Spoken Corpus(뉴질랜드 구어)가 사용되었다.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에서 사용되는 영어 구어 및 문어 자료로 된 이들 거대 코퍼스를 각각 100만 단어로 동일하게 조정하여 하위 코퍼스로 하는 코퍼스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코퍼스 구성은 균형성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4억2천5백만 단어의 COCA 코퍼스를 100만 단어로 조정하였을 때, 이 조정된 코퍼스가 원래의 코퍼스를 대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강한 의문이 들며, 압도적으로 미국식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국내의 현실에서 보았을 때, 미국식 영어 자료가 전체 코퍼스의 1/4에 불과하다는 점은 이 코퍼스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의 기본 어휘 목록 개발을 위한 독자적인

코퍼스 개발이 요원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시도는 방향이 바람직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2장에서 논하였듯이, 코퍼스를 기반으로 한 기본 어휘 선정에서는 빈도에 분산을 곱한 값인 용례지수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나,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기본 어휘 선정에서는 빈도, 범위, 친숙도(familiarity)라는 세 개의 기준이 사용되었다. 이문복과 신동광(2015)이 지적하듯이, 초등학생을 위한 기본 어휘는 코퍼스에서의 빈도와 같은 유용성의 기준만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전 교육과정의 기본 어휘 선정 시에도 초등학생의 인지 발달을 고려한 명사 위주의 단어와 흥미와 동기를 유발하는 주제나 소재와 관련된 단어(예를 들어, 과일, 동물, 음식 이름 등)가 실제 언어 사용에서의 빈도와 상관없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초등영어 전문가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 왔다. 한마디로, 친숙도는 이런 전문가의 의견을 설문을 통해 계량화한 것으로 피치못할 기본 어휘 선정 기준의 하나로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비록 빈도와 범위 대신에 용례지수를 활용하여 어휘의 상대적 유용성을 따지는 것이 더욱 타당하고 객관적인 방법이나,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기본 어휘 선정이 전반적으로 만족스럽게 이뤄진 것으로 평가해도 무방해 보인다. 이문복과 신동광(2015)에 따르면,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기본 어휘 목록은 앞서 언급한, 100만 단어로 조정된 8개의 해외 코퍼스 모두에 대해 90% 이상의 텍스트 포괄률(약 92%의 평균 텍스트 포괄률)을 보이고 있다. 더군다나 2015년과 2022년 사이의 7년 동안에 영어 어휘의 사용이 크게 변했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평가와 여건은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기본 어휘 목록 개발이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기본 어휘 지침의 문제점을 수정·보완하면서 이 교육과정의 기본 어휘 중에서 불필요한 것은 빼고 필요한 것은 추가하는 최소한의 가감 작업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강하게 시사한다.

3.2 기술상의 문제점

2015 기본 어휘 지침은 기본 어휘의 선정보다는 선정된 어휘와 관련된 지침에 문제가 더 있어 보인다. 문제점의 성격에 따라 기술상의 문제점과 이론적인 문제점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기술상의 문제점은 지침의 내용과 제시 측면과 관련된 것인데, 이들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 기본 어휘의 성격에 관한 명시적인 정의가 빠져 있다.
- 둘째, 기본 어휘 관련 지침의 내용과 내용 제시 순서가 바람직하지 않다.
- 셋째, 학년군별 학습 어휘 수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 넷째, 기본 어휘의 활용에 관한 규정이 학습에만 국한되어 있다.

기본 어휘 관련 지침은 무엇보다도 교육과정에서의 기본 어휘가 무엇이고 어떠한 성격을 가진 것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교사와 학생이 기본 어휘가 무엇인지, 어떤 성격인지를 알고 있으리라고 암묵적으로 전제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

2015 기본 어휘 지침은 학습자의 인지적 발달에 따른 단계적 어휘 학습을 촉진하기 위해 기본 어휘를 세 부류로 구분하고 이들 부류를 어느 학년군 또는 과목에서 학습하면 좋을 것인지를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는데, 이 설명이 지침의 마지막에 나온다.

7. 기본 어휘 목록에 제시한 어휘는 모두 3,000개이며, 어휘 뒤에 *표를 한 어휘는 800개로 초등과정에서 사용하기를 권장하고 **표를 한 어휘는 400개로 진로 선택 및 전문 교과 I에 사용하기를 권장한다.

이 설명은 기본 어휘의 성격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지침의 첫머리에 제시되어야 할 기본 어휘의 정의 바로 다음에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이 설명은 또한 내용상으로도 문제가 있다. 이 설명대로라면 3,000개의 어휘가 800-1,800-400의 세 그룹으로 분류되는데, 이렇게 비대칭적으로 등급화된 분류가 학생들의 언어적 발달 과정과 부합하지도 않고 널리 알려진 기본 어휘 목록의 분류 방식과도 많은 차이가 있어 이 분류가 과연 타당한지에 대해서 강한 의구심이 들게 한다.

2015 기본 어휘 지침의 첫 번째로 학년군별 또는 과목별 학습 어휘 수에 관한 규정이 아래와 같이 나온다.

1. 각 학년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어휘 수는 다음과 같다.

초등학교 3~4학년군: 240 낱말 내외

초등학교 5~6학년군: 260 낱말 내외

(누계: 500 낱말 내외)

중학교 1~3학년군: 750 낱말 내외

(총계: 1,250 낱말 내외)

고등학교 영어(공통과목): 550 낱말 내외

(총계: 1,800 낱말 내외)

고등학교 일반 선택 및 진로 선택, 전문 교과 I 은 교과목별로 별도로 제시한다.

이 규정은 교육과정의 학년군 또는 과정에서 학습해야 하는 새 학습 어휘와 총 학습 어휘 수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아 다소 혼란을 주고 있다. 현재 규정은 초등학교 3~4학년군과 초등학교 5~6학년군, 중학교 1~3학년군 그리고 고등학교 영어(공통 과목)까지는 학년군 또는 과목별로 새 학습 어휘 수와 누적 학습 어휘 수(누계) 또는 총 학습 어휘 수(총계)를 제시하고 있지만, 그 외의 고등학교 일반 선택 및 진로 선택, 전문 교과 I 과목은 총 학습 어휘 수만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중학교 1~3학년군과 고등학교 영어(공통 과목)의 새 학습 어휘로 각각 정해진 750개와 550개의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불분명하다. 예를 들어, 중학교 1~3학년군의 750개 단어가 3,000개의 기본 어휘 중 초등과정에서 학습하기를 권장하는 800개의 기본 어휘를 일부 포함할 수 있는지 아니면 포함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 고등학교 영어(공통 과목)의 550개 새 학습 어휘는 더욱 아리송하다. 초등학교나 중학교 과정에서 이미 학습한 단어가 학생마다 다를 텐데, 어떻게 새로 학습할 어휘를 정할 수 있는지가 수수께끼와 같다고 할 수 있다.

2015 기본 어휘 지침 가운데 기본 어휘의 활용과 관련하여 아래 규정이 있다.

‘1’항의 ‘낱말 내외’와 관련해서는, ‘5% 범위 이내에서 가감하여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초등과정과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 선택 과목까지는 기본 어휘 목록에 제시된 어휘 중에서 학년별 또는 학년군별 권장 어휘수의 90% 이상을 학습할 것을 권장하며 고등학교 진로 선택 및 전문 교과 I 부터는 학년별 권장 어휘 수의 80% 이상을 학습할 것을 권장한다.

이 규정은 학습에서 기본 어휘가 어느 정도 사용되어야 하는지를 명확히 하고 있지만 평가에서 기본 어휘가 어떻게 활용되어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언급이 없다. 교육과정의 성취기준 달성 여부를 따지는 데에 있어서 평가가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한, 기본 어휘의 활용에 관한 이 규정은 학습뿐만 아니라 평가에도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3 이론적인 문제점

2015 기본 어휘 지침은 앞서 논한 기술상의 문제점뿐만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이론적인 문제점을 다수 안고 있다. 먼저, 외래어에 상응하는 근원어(source word)에 대한 아래 규정은 근거가 미약하고 교육적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6. 생활 주변에서 흔히 사용하고 있는 아래의 낱말들은 외래어 가운데 학년별로 50단어씩 사용 가능하며 이는 새로운 어휘로 간주하지 않는다.²

alarm, album, alcohol, amateur, ambulance, apartment, arch, bacon, badminton, bag, banana, belt, bench, biscuit, bonus, box, bus, butter, cabinet, cake, calcium, camera, camp, campaign, campus, card, carol, carpet, catalogue, center, champion, channel, chart, cheese, chicken, chocolate, click, coat, coffee, comic, computer, course, court, crayon, cream, cup, data, diamond, diet, disc, doughnut, drama, dress, drill, drum, echo, elevator, elite, energy, essay, event, fashion, feminist, fence, festival, fiction, film, fork, gallery, game, gas, golf, gown, graph, guard, guitar, gum, hamburger, harmony, highlight, hint, hormone, hotel, image, interior, internet, interview, issue, jacket, jam, jazz, juice, jump, kangaroo, kiss, kiwi, laser, league, lemon, lobby, magic, manual, marathon, market, mask, medal, media, melon, member, menu, message, model, motor, mystery, news, notebook, okay, opera, orange, oven, page, panda, parade, partner, party, pen, percent, piano, pie, pilot, pipe, pizza, plastic, plug, program, project, quiz, radio, recreation, rehearsal, ribbon, robot, rocket, rugby, salad, sample, sandwich, sauce, scarf, scenario, schedule, section, seminar, service, set, shirt, skate, sketch, ski, snack, soup, spaghetti, sponsor, sport, spray, spy, staff, star, steak, stereo, studio, style, sweater, tank, taxi, team, technique, technology, television, tennis, tent, terror, ticket, toast, tomato, topic, towel, track, truck, vaccine, veil, video, villa, violin, virus, vision, waiter, website, wine, yacht (200개)

² 정확하게 말해, 이 규정에서 용어가 잘못 사용되었다. 외래어로 제시된 200개의 영어 단어는 외래어가 아니고 외래어에 상응하는 근원어이다. ‘피아노’는 외래어이지만 ‘piano’는 그 근원어이다.

위의 200개 근원어에 상응하는 외래어가 생활 주변에서 흔히 사용하고 있는 외래어라고 했지만, Lee(2020)는 세종 코퍼스를 토대로 상당수가 그렇게 흔히 사용되는 외래어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 주면서, 심지어 근원어 ‘magic marker’로부터 절단(clipping)에 의해 ‘매직’으로 된 외래어 같은 경우는 교사나 학생 모두 외래어의 파생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근원어를 잘못 사용할 수도 있음을 경고하기도 했다. 더군다나, Lee(2021)는 위 200개 근원어 중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을 토대로 한, 중학교 1~3학년군, 공통 영어, 영어 I, II의 모든 교과서에서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근원어가 19개나 된다고 하였다. 이는 이들 근원어 중에는 우리 학생들이 학습해야 할 가치가 매우 낮은 것도 있음을 보여준다.

위 규정은 영어로부터 차용된 외래어가 영어 학습을 촉진하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이론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들 외래어를 활용하여 영어 학습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과 이들 근원어를 교육과정에 제시하고 이들을 학습 어휘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매우 다른 것이다. 영어 L2 학습에 외래어를 활용하는 것의 단점으로 빈번히 언급되는 것 중의 하나는 학생들이 외래어에 상응하는 근원어에 대해서 아는 것이 거의 없거나 부정확하게 알고 있음에도 그 단어를 잘 알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 그 단어를 제대로 학습하지 않아 영어를 사용하는 데에 있어서 그 단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Lee 2021, Masson 2013). 더군다나, 위의 근원어와 그에 상응하는 외래어를 비교하면, 외래어를 제한된 뜻으로만 사용하거나 영어에는 없는 뜻으로 사용한다. 예를 들어, 위의 근원어 *set*과 이에 상응하는 ‘세트’를 비교해 보자. 후자는 도구나 가구 따위의 한 벌, 무대장치, 또는 과마할 때 머리카락을 마는 일이나 그런 기구를 뜻하는데, 이런 의미들은 전자가 가진 93개(동사로서의 의미만 64개임)의 의미 중 부수적인 것들에 불과하다. 어떻게 보면, 위의 근원어 중에서 우리 학생들이 학습하지 않아도 되는 단어는 하나도 없다. 하다못해, *tomato*라는 단어가 어떻게 발음되고, 철자가 어떻게, 복수형이 어떻게 되는지 등은 학습의 어느 단계에서라도 배워야만 하는 것이다.

2015 기본 어휘 지침이 안고 있는 두 번째 이론적인 문제는 기본 어휘 또는 새 학습 어휘로부터 면제되는 어휘에 관한 아래 규정이다.

5. 인명, 지명, 국가명 등 고유 명사, 기수, 서수, 로마자화된 우리말 단어, 알파벳, 달과 요일명, 계절명, 호칭, 무게, 돈, 길이 등 단위를 지칭하는 단어는 새로운 어휘로 간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다른 의미로 활용이 가능한 ‘hundred’, ‘thousand’, ‘million’ 등과 같은 단위명은 제외한다.

자세히 살펴보면, 이 규정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매우 임의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달과 요일 이름 또한 고유 명사이므로 ‘인명, 지명, 국가명 등 고유 명사’라는 표현과 의미가 중복됨에도 별도의 표현으로 제시되어 있어 잉여적으로 보이며, 계절명은 고유 명사가 아닌 보통 명사이므로 기본 어휘에서 배제될 이유가 없고, 영어의 기수와 서수를 읽고 쓰기 위해서는 0부터 13까지의

기본 기수와 첫째부터 셋째까지의 기본 서수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는 학생들이 반드시 배워야 하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기본 어휘에서 제외되었다.³

2015 기본 어휘 지침의 세 번째 문제점은 아래 규정에서 보듯이 기본 어휘 목록에서 사용하고 있는 어휘의 기본 단위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3. 기본 어휘 목록에는 대표형만 제시하고, 대표형은 굴절 및 파생의 변화형을 포함한다. 단, 빈도수가 높고 학습에 필요한 일부 변화형은 기본 어휘 목록에 제시한다.

이 규정의 단서 조항만 없으면, 어휘 목록의 기본 단위로 단어 군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명확하다. 하지만 이런 단서 조항은 교육과정의 기본 어휘를 활용하려는 사람을 당혹스럽게 한다. 먼저 빈도가 높고 학습에 필요한 변화형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자의적이라는 것이고, 자의적인 대표형 제시는 대표형으로 정해진 변화형과 그저 한 대표형의 변이형으로 목록에서 보이지 않는 변화형 사이에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를 파악하기를 어렵게 한다. 예를 들어, 대표형으로 제시된 *disadvantage*의 *dis-*는 반대나 부정을 나타내는 접두사인데, 이것은 대표형으로 제시되지 않은 *displeasure*의 *dis-*와 그 의미가 같다. 같은 접두사임에도 불구하고, 학습자나 교사가 대표형의 어근에 첨가된 접두사와 단지 대표형의 파생형을 만드는 접두사를 서로 다른 두 접두사로 잘못 이해할 가능성이 높다. 체계적인 파생 변화형을 학습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 어휘 목록의 모든 항목이 예외 없이 대표형으로 제시되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 더군다나, 파생어임에도 기본 어휘 목록에서 대표형으로 제시된 단어가 상당수에 이른다. 접두사 *dis-*에 의한 파생어이지만 표제어로 제시된 경우만 해도, *disabled*, *disadvantage*, *disagree*, *disappear*, *discharge*, *disclose*, *discount*, *discover*, *disease*, *disorder*, *displace*, *dispose* 등 12개나 된다.

어휘 목록의 기본 단위에 관한 위 규정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어휘의 기본 단위로서 단어 군이 모든 파생 접사에 의해 만들어지는 변화형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단어 군의 정의는 언어 능숙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학습자라도 단어 군에 속하는 모든 파생어를 사용 면에서 알지 못하며(Schmitt and Zimmerman 2002) 학습자의 어휘 지식의 크기와 깊이가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Mochizuki and Aizawa 2000, Schmitt and Meara 1997, 이현우 2020, 2022, 이현우와 주형미 2021, 전재영과 이현우 2022)를 도외시한 것으로서 매우 비현실적이다. 영어를 L2로 공부하는 일본 대학생이 대표형을 알고 있지만 파생형은 고작 54%만 이해하고 있다는 McLean(2017)의 연구 결과를 생각할 때, 우리 학생들이 3,000개의 대표형과 이들의 모든 파생형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Brown(2018)은 텍스트 포괄률이 98%인 단어 군 기반 어휘 목록의 90%를 학습자가 알고 있다면, 실제 텍스트 포괄률이 88%(= 98% x 90%)로 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3.1절에서 해외 8개 코퍼스에 대한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기본 어휘 목록의 평균 포괄률이 약 92%라고 하였다. 이상적인 우리 학생이 이 기본 어휘 목록의 50%를 알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³ *new-GSL* 또한 1부터 10까지의 기수와 첫째부터 넷째까지의 서수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를 기본 어휘로 포함하고 있다.

이 경우, 독립된 대표형으로 제시된 일부 파생형을 포함한 이 목록이 거의 단어 군 기반 어휘 목록이므로 이들 8개 코퍼스에 대한 실제 포괄률이 약 46%(92% x 50%)를 조금 넘는 수준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4.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기본 어휘 관련 지침

3장에서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기본 어휘 목록의 개발 방법과 절차를 살펴보았고 관련 지침의 기술상의 문제점과 이론적인 문제점을 논하였다. 이 장에서는 이들 문제점이 2022 기본 어휘 지침에서 어떻게 해결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논하면서 이 교육과정의 기본 어휘가 어떻게 정해졌는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4.1 기술상의 문제점 해결

2015 기본 어휘 지침이 안고 있는 기술상의 첫 번째와 두 번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22 기본 어휘 지침은 첫머리에 다음 규정을 두고 있다.

1. 영어과 기본 어휘 목록은 영어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 달성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3,000개의 단어로 되어 있다. *표를 한 단어는 800개로 초등학교에서 사용하기를 권장하고, **표를 한 단어는 1,200개로 중학교와 고등학교 공통과목에서 사용하기를 권장한다. 나머지 1,000개의 단어는 그 외의 과목에서 사용하기를 권장한다.

이 규정은 어휘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 달성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단어로 정의함으로써, 기본 어휘와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이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명시하였다. 또한, 3,000개의 기본 어휘를 800-1,200-1,000개의 더 균형적인 세 그룹으로 제시함으로써, 이 어휘 목록을 국내외의 어휘 목록과 비교하기 쉽게 하였다. 대체적으로, *표를 한 800 단어 목록과 **표를 한 1,200 단어 목록은 각각 *BNC/COCA Level 6 word family lists*의 첫 번째와 두 번째 1000 단어 목록에 해당한다.

학년군별 또는 과목별 학습 어휘 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2022 기본 어휘 지침은 아래 표를 제시하고 있다.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 어휘 수		
과목명		어휘 수
초등학교	초등학교 3~4학년	300단어 이내
	초등학교 5~6학년	300단어 이내
	누계: 600단어 이내	
중학교	중학교 1~3학년	1,500단어 이내

고등학교	공통과목*	기본 영어 1, 2	1,600단어 이내
		공통 영어 1, 2	1,800단어 이내
	일반 선택	영어 I	2,000단어 이내
		영어 독해와 작문	2,200단어 이내
		영어 II	2,500단어 이내
	진로 선택	직무 영어	2,000단어 이내
		영어 발표와 토론	2,500단어 이내
		심화 영어	2,800단어 이내
		영미 문학 읽기	3,000단어 이내
		심화 영어 독해와 작문	3,500단어 이내
	융합 선택	실생활 영어 회화	1,500단어 이내
		미디어 영어	2,000단어 이내
세계 문화와 영어		2,200단어 이내	

*기본 영어와 공통 영어의 어휘 수는 각각 1과 2의 합본 상태의 어휘 수를 말한다.

위 표에서 보듯이, 현 지침은 새 학습 어휘라는 개념을 중복적인 학습 어휘를 배제한 순수한 학습 어휘량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초등학교의 두 학년군에만 누계 형식으로 적용함으로써 나머지 학년군이나 과목에서 학습해야 하는 최소한의 어휘량을 더욱 명료하게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학교 1~3학년군의 최소한의 총 학습 어휘 수는 1,500개이다. 이는 초등학교에서 학습할 것을 권장하는 800개의 기본 어휘 모두가 중학교 1~3학년군 교과서에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외의 기본 어휘나 기본 어휘 외의 어휘 700개를 중학교 3년 과정에서 학습해야 함을 뜻한다.⁴ 새 학습 어휘 수를 굳이 명시하지 않아도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 이상의 새 기본 어휘를 얼마나 많이 학습해야 하는지를 충분히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학습 어휘량과 비교할 때, 초등학교 3~4학년군과 5~6학년군에서 새 학습 어휘가 각각 240단어에서 300단어로 그리고 260단어에서 300단어로 늘었고, 중학교 1~3학년군에서는 총 학습 어휘가 1,250단어에서 1,500단어로 증가하였다. 이런 증가는 다음 절에서 논할 근원어 규정 삭제가 미치는 영향을 상쇄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간 제기되어 왔던 급간 어휘 학습량의 불균형을 시정하려는 조치이기도 하다. 현재의 교육과정을 따르면, 초등과정에서 교수·학습하는 데 사용하는 어휘의 선택 범위가 너무 작고,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간의 어휘 수준의 차이가 너무 커서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영어 공부를 포기하는 학생의 비율이 빠르게 높아지는 폐단이 있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학습해야 하는 어휘의 양을 늘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넘어갈 때 (어휘) 학습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⁴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을 토대로 제작된 중학교 교과서로 모의실험을 해 본 결과, 이들 교과서에서 초등과정에서 사용하기를 권장한 800개의 기본 어휘 가운데 650~700여 개가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3.2절에서 지적하였듯이, 2015 기본 어휘 지침은 기본 어휘의 활용을 학습에만 국한하여 명시하였다. 하지만 이런 제한은 교육과정에서 평가보다 학습이 더 비중 있게 다루어지지만, 평가 또한 교육과정의 또 다른 큰 축이라는 점에서 볼 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영어과의 기본 어휘가 학습에서뿐만 아니라 평가에서도 충실하게 사용될 때, 학생들이 이들 어휘를 더 효과적으로 학습하여 영어교육의 질적 향상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점이 고려되어 다음 규정이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지침에 제시되었다.

3. 학습 또는 평가에서 사용되는 어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공통과목 및 일반 선택과목은 90% 이상을, 진로 선택과목 및 융합 선택과목은 80% 이상을 기본 어휘 목록에서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학습뿐만 아니라 평가에서도 기본 어휘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명시하는 것은 이들 어휘를 더욱 효과적으로 학습하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줄 뿐만 아니라 ‘줄 세우기’ 학교 내신 시험을 위해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문항의 출제를 방지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영역 같은 고부담 시험이 안정적으로 시행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참고로,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영역의 검사지에 사용된 어휘의 90%가 기본 어휘인 경우는 별 논란이 없는 시험이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적지 않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기본 어휘가 아닌 어휘를 많이 사용하여 어려운 시험을 치르게 했다고 학생들의 영어 실력이 향상되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학습과 평가에서 기본 어휘를 더욱 자주 접하게 함으로써 학습자가 이들 어휘를 더 유창하고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기회를 가지게 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4.2 이론적인 문제점 해결

2015 기본 어휘 지침의 첫 번째 이론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200개의 근원어를 기본 어휘나 새 학습 어휘로부터 면제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먼저 이들 근원어 중에서 용례지수가 크거나 학습자의 인지 발달과정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학습할 가치가 높은 것을 기본 어휘로 하고, 학년별로 사용된 50개의 근원어를 새 학습 어휘로 간주하지 않는 조항의 삭제가 미치는 영향을 상쇄하는 조치로 학년군별 또는 과목별 새 학습 어휘나 총 학습 어휘 수를 4.1의 표와 같이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기본 어휘 또는 새 학습 어휘의 면제에 관한 예외 조항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22 기본 어휘 지침은 아래와 같이 명확한 예외 항목과 예시를 같은 곳에서 제시함으로써 이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5. 고유 명사, 호칭, 감탄사, 로마자화된 우리말 또는 영어 이외 외국어 단어, 알파벳과 문자, 단위명, 약어, 화학식, 기수와 서수는 기본 어휘뿐만 아니라 학습해야 하는 새로운 어휘로도 간주하지 않는다.

[예시]

<고유 명사>

- 인명: Bill, Laura, Mr. Porter, Doctor Watson, ...
- 지명: Asia, Brazil, California, the Pacific (Ocean), Jeju, the (River) Thames, the Panama Canal, Lake Tahoe, the Sahara, Mount Everest, the Alps, ...
- 언어명: Korean, English, French, German, Chinese, Arabic, ...
- 월·요일명: January, February, ... Monday, Tuesday, ...
- 축일명: Independence Day, Christmas, ...
- 기타: Kennedy Airport, Westminster Bridge, Harvard University, the House of Commons, the Savoy, the Mermaid (Theatre), the Louvre Museum, The New York Times, ...
- 단, Lake Tahoe와 같이 이름과 보통 명사로 이뤄진 고유 명사의 경우에 보통 명사에 해당하는 것은 일반 기본 어휘 관련 지침을 따른다.
- <호칭>
- Mr. Ms. Madam, sir, ma'am
- <감탄사>
- Oh, Ah, Aha, Wow, Yippee, Ouch, Ow, Ugh, Ouh, Shhh, ...
- <로마자화된 우리말 또는 영어 이외 외국어 단어>
- bulgogi, pungsokdo, samullori, ...
- umuntu ngumuntu ngabantu (a person is a person through (other) people), ...
- <알파벳과 문자>
- A, B, C, ... a, b, c, ... α, β, γ, ... A1, Q2, ...
- <단위명>
- pound, gram, ounce, liter, ... dollar, cent, euro, ... meter, yard, mile, percent, ...
- <약어>
- A.M. (a.m., am), P.M. (p.m., pm), A.D. (AD), B.C. (BC), TV, CD, DVD, DNA, SNS, AI, Wi-Fi
- <화학식>
- CO₂, H₂O, CH₄, ...
- <기수>
- zero,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nine, ten, eleven, twelve, thirteen, twenty, thirty, hundred, thousand, million, billion을 제외한 기수
- <서수>
- first, second, third, twenty-first, twenty-second, twenty-third를 제외한 서수

위에서 보듯이, 기본 어휘나 새 학습 어휘의 예외가 되는 고유 명사를 세분하지 않아 잘못 이해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인명과 지명(국가명, 대륙명, 지역명도 포함)뿐만 아니라 언어명이나 인종 또는 국민 이름과 월·요일명, 축일명 그리고 기타 이름을 예외 함께 제시하고 있다.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사항은 기본 기수와 서수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는 기본 어휘 목록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비록 기본 기수와 서수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를 기본 어휘로 정하는지는 기존의 어휘 목록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교육을 지향하는 교육과정의 기본 어휘

목록은 기본 기수와 서수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 초등학교 3학년 정규 과목에서야 영어를 처음으로 배우는 학생들은 학교의 교육과정이 아니면 영어로 숫자를 세는 법을 제대로 배우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20개의 기본 기수와 6개의 기본 서수를 익히면 나머지 모든 기수와 서수를 순차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기본 기수와 서수를 이미 배운 학생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학교에서 이를 가르쳐 줘야 모든 학생이 동등한 수업을 받는다는 생각을 가지게 될 것이다.

2015 기본 어휘 지침에서 단어 군이 어휘 목록의 기본 단위로 일관성 있게 적용되지 못한 문제점과 단어 군에 모든 파생 접사에 의한 변이형을 포함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2022 기본 어휘 지침에서 (상)사전등재형을 기본 단위로 사용하는 것을 검토하였으나 결국 이보다는 단어 군을 기본 단위로 하기로 하였다. 단어 군을 어휘 단위로 하는 것은 (상)사전등재형으로 하는 것보다 더 작은 단어 목록으로 더 높은 텍스트 포괄률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더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단어 목록을 개발하는 목적이 더 높은 포괄률을 가능한 한 빨리 그리고 쉽게 달성하기 위해 학습자가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한다고 생각되는 것을 제시하는 것이라면, (상)사전등재형보다는 좀더 포괄적이지만 Bauer와 Nation(1993)의 수준 6 단어 군보다는 덜 포괄적인 단어 군을 어휘의 기본 단위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BNC/COCA Level 3 partial word family lists*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 단어 목록에서는 표제어가 모든 굴절형 그리고 Bauer와 Nation(1993)의 수준 3 파생 접사에 의해 만들어지는 파생형을 대표한다. 분명, 이들 목록은 단어 군을 어휘 단위로 정하는 방법론에 대한 많은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것으로 보인다.

2015 기본 어휘 지침의 가장 큰 문제는 기본 어휘 목록에서 전제하는 우리 학생의 L2 어휘 지식 수준이 이들의 실제 수준보다 매우 과대하게 부풀려져 있다는 것이다. 기본 어휘 목록에 관한 이론은 어떠한 기본 어휘 목록이든지 간에 그 목록이 학습자의 어휘 지식을 가장 비슷하게 반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학습자의 영어 L2 어휘 지식은 영어 어휘 지식의 크기와 깊이로 되어 있다. 영어 어휘 지식의 크기는 뜻을 어느 정도(예를 들어, 대표적인 뜻) 알고 있는 영어 단어의 개수이고, 지식의 깊이는 알고 있는 단어 각각에 대한 여러 관련된 지식의 망이다. 이 망에는 단어의 발음, 음운론적인 특성, 어형론적인 특성, 연어 양상, 통사적인 특성, 의미론적·화용론적인 특성이 포함되어 있다. 이 중에서도 단어의 파생에 관한 지식이 어휘 지식의 깊이의 핵심이다. 2015 기본 어휘 목록은 3,000개의 단어로 이뤄져 있다. 이는 우리 학생의 영어 어휘 지식의 크기가 이 정도면 이상적이라는 것이다. 열심히 노력하여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모두 달성하면 이 정도 개수의 단어를 알 것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기본 어휘 목록은 파생에 관해서는 무제한이다. 파생 변화형의 대표형이 기본 어휘 목록에 있는 한, 그 변화형 또한 기본 어휘로 취급된다는 것이다. 영어의 파생 접사는 수백 개에 이른다. 비록 기본 어휘 목록이 3,000개로 되어 있지만, 파생 변화형까지 포함한다면 기본 어휘 목록이 포함하는 단어 유형은 어림짐작으로 4.5만 개가 넘는다.

학생들이 알고 있거나 실제 배울 수 있는 영어 단어 유형의 적정치를 고려한다면, 대표형으로 대변되는 파생 변화형을 만드는 파생 접사를 일정한 개수로 제한해야 한다. 2009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서는 *-er, -ist, -or, -ly, -ness, un-, -ation, -al, -ment, -ity, -ful, -ive*만 인정하고 있고, Bauer와 Nation(1993)은 수준 3부터 수준 6의 4개의 수준으로 분류된 84개의 파생 접사를

인정하고 있다. 2022 기본 어휘 지침은 아래와 같이 이 둘의 중간 수준에서 36개의 파생 접사에 의한 파생형을 단어 균의 일원으로 허용하고 있다.⁵

4. 기본 어휘 목록은 단어의 대표형으로 제시한다. 대표형은 그 자체와 모든 굴절 변이형과 다음 36개의 파생 접사에 의한 변이형을 나타낸다. 단, 이들 파생 변이형은 *precious* ‘price 어근 + *ous*’와 같이 파생 접사가 의존 어근에 붙어 만들어진 변이형을 포함하지 않는다.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학습에 중요한 일부 파생 변이형은 대표형 옆의 () 안에 표기한다.

[예시]

<굴절 변이형>

write:	writes, wrote, written, writing
be:	am, are, is, was, were, been, being
have:	has, had, having
book:	books; foot: feet
tall:	taller, tallest
they:	their, them, theirs, themselves

<파생 변이형>

un-:	unable, unhappy, unlike
in- (il-, im-, ir-):	incorrect, illogical, impossible, irresponsible
en- (em-) :	endanger, enjoy, enlarge, embody
inter-:	interact, international, interview
mis-:	misfortune, mistake, mistrust
re-:	rebuild, recycle, review
dis-:	disappear, discount, disease
-able:	considerable, preventable, sustainable
-er:	leader, teacher, writer
-ish:	childish, selfish, foolish
-less:	endless, homeless, restless
-ly:	finally, happily, softly
-ness:	darkness, softness, weakness
-or:	actor, conqueror, inventor
-th:	fourth, fifth, ninth, twelfth
-y:	rainy, dirty, easy

⁵ 36개의 접사 가운데 Bauer와 Nation(1993)의 수준 3 접사가 9개(*ur-*, *-able*, *-er*, *-ish*, *-less*, *-ly*, *-ness*, *-th*, *-y*), 수준 4 접사가 10개(*in-*, *-al*, *-ation*, *-ful*, *-ism*, *-ist*, *-ity*, *-ize*, *-ment*, *-ous*), 수준 5 접사가 9개(*en-*, *inter-*, *mis-*, *-ance*, *-ant*, *-ary*, *-ence*, *-ent*, *-ship*), 수준 6 접사가 7개(*dis-*, *re-*, *-ic*, *-ify*, *-ion*, *-ive*, *-ure*) 있다. 여기에 접사 *-er*의 변이형으로도 볼 수 있는 *-or*이 독립된 접사로 추가되었다.

-al (-i(c)al, -ual):	formal, biological, material, usual
-ation (-ication):	information, realization, situation, application
-ful:	beautiful, colorful, harmful
-ist:	pianist, scientist, tourist
-ity:	ability, generosity, mentality
-ism:	capitalism, nationalism, romanticism,
-ize (-ise):	apologize, finalize, criticise
-ment:	basement, government, payment
-ous:	dangerous, famous, ambitious
-ance:	acceptance, importance, maintenance
-ant (-icant):	consultant, participant, pleasant, significant
-ary:	elementary, legendary, primary, secondary
-ence:	dependence, emergence, interference
-ship:	friendship, membership, relationship, scholarship
-ent:	different, excellent, president, student
-ic:	Arabic, economic, dramatic, programmatic
-ify:	identify, quantify, signify
-ion:	admission, convention, description, perception, union
-ive:	effective, negative, positive
-ure:	departure, failure, mixture

위 규정에서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학습에 중요한 일부 파생 변이형이 의미하는 것은 빈도가 대표형보다 높거나 빈도가 일정 수준이 되면서 파생 과정에서 일어난 음운 변화로 인해 대표형과 별개의 단어로 잘못 인식될 가능성이 높은 파생어이다.

그렇다면 수백 개의 파생 접사 중에서 어떻게 36개의 접사를 기본 접사로 정할 수 있었는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코퍼스 기반 기본 어휘 목록을 개발하는 방법과 절차를 준용하였다. 먼저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을 토대로 제작된 교과서로 코퍼스를 만들고 이들 코퍼스에서 사용된 파생 접사의 유형과 출현형의 수를 조사하였다. 그런 다음 각 접사의 용례지수를 아래 산출식으로 구하였다.

Carroll(1970)의 용례지수 U_m 산출식

n = 범주(하위 코퍼스)의 수;

f_j = 범주 j ($j = 1, 2, \dots, n$)에서의 주어진 단어 유형의 빈도;

F = 코퍼스에서의 그 단어의 총 빈도 = $\sum_j f_j$

s_j = 범주 j 에서의 단어 출현형의 수;

N = 코퍼스에서의 단어 출현형의 수 = $\sum_j s_j$

p_j = 범주 j 에서의 주어진 단어 유형의 사례인 단어 출현형의 비율 = f_j / s_j

$P = \sum_j p_j$. (P는 아무 양수나 될 수 있고, 일반적으로 1이 안 됨)이면,

$H = \log P - \sum_j p_j \log p_j / P$; ($p_j \log p_j = 0$ for $p_j = 0$).

$D_2 = H / \log n =$ 분산 지수;

$s_{pmax} = s_j p_j$ 의 최댓값을 가지고 있는 범주에 대해;

$f_{min} = F * s_{pmax} / N$;

$U_m = (1,000,000/N) * (F * D_2 + (1 - D_2) * f_{min})^6$

위 산출식을 이용하여, 전재영과 이현우(2022)는 검정을 통과해 현재 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9종의 영어II 교과서에 나오는 파생 접사의 용례지수를 구했고, 이현우(2022)는 파생 접사의 빈도에 관해서 동일한 2019학년도, 2021학년도와 2022학년도 수능영어 시험에 나오는 파생 접사의 용례지수를 구했다. 이 두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순위	영어II 교과서		수능영어 시험	
	접사	U_m	접사	U_m
1	-ly	8,615	-al	15,374
2	-al	5,167	-ly	11,500
3	-ion	4,778	-ation	9,764
4	-er	4,631	-ion	7,241
5	-ation	4,254	-er	4,975
6	-ity	2,669	-ity	4,564
7	-ment	2,493	-ive	4,124
8	-ive	2,438	-ment	3,118
9	-ful	1,620	-able	2,867
10	-ent	1,396	-ic	2,473
11	-y	1,067	-ize	2,349
12	-ant	1,063	-ful	2,065
13	-ist	1,046	un-	1,710
14	dis-	946	-ist	1,371
15	-ence	943	-ent	1,224
16	-able	898	en-	1,197
17	en-	891	-ify	1,167
18	-ic	851	-ous	1,135

⁶ Carroll(1970)의 용례지수 U_m 은 분산지수 D_2 가 원빈도(raw frequency)가 아닌 여러 하위 코퍼스에서의 사용추정치(probability)를 바탕으로 계산된 것이기 때문에 하위 코퍼스의 크기가 같지 않은 경우에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위 코퍼스의 크기가 믿을 만한 사용추정치를 내놓을 수 있을 만큼의 크기만 되면 된다. 산출식의 마지막 줄에서 보듯이, U_m 은 백만 단어의 표준 코퍼스 크기로 조정된 값이다.

19	-ance	837	-th(depth)*	1,104
20	-ous	832	re-	1,086
21	un-	773	in-	997
22	-ize	757	-ant	933
23	in-	712	-ness	901
24	-or	686	-ance	842
25	-ition(nutrition)*	627	-or	538
26	-ness	610	-ition(nutrition)*	472
27	re-	578	-ence	457
28	-ure	564	non-*	443
29	-ify	491	-en(widen)*	443
30	-an(American)*	481	inter-	439
31	-less	471	-y	438
32	inter-	401	-an(American)*	408
33	-ship	393	-th	333
34	-ary	378	mis-(misfit)	332
35	-ly(leisurely)*	345	-less	296
36	-th	317	un-(untie)*	228
37	-th(depth)*	299	-ism	225
38	trans-*	284	-age*	186
39	-ar*	279	-ship	152
40	-al(arrival)*	248	-ian*	152
41	mis-	229	-al(arrival)*	151
42	-en(widen)*	217	pre-*	137

위 표에서 용례지수가 의미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영어Ⅱ 교과서 코퍼스에서 1순위인 접사 *-ly*의 용례지수가 8,615라는 것은 영어Ⅱ 교과서의 텍스트와 같은 100만 단어의 텍스트에서 이 접사가 8,615번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뜻하고, 수능영어 시험 코퍼스에서 42순위인 접사 *pre-*의 용례지수가 137이라는 것은 수능영어 시험 텍스트와 같은 100만 단어의 텍스트에서 이 접사가 137번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 표에서 보듯이, 용례지수의 순위가 27위까지의 접사만 보면, 두 연구의 결과가 대동소이하다. 눈에 띄는 차이는 영어Ⅱ 교과서 코퍼스에서 용례지수가 14위인 *dis-*가 수능영어 시험 코퍼스에서는 나오지 않고, 역으로 후자에서 용례지수가 19위인 *-th(depth)*가 전자에서는 37위라는 것뿐이다. 2022 기본 어휘 지침은 전자의 결과를 중심으로 하면서 후자의 결과로 이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36개의 접사를 확정하였다. 이렇게 한 이유는 전자가 최대 41,382개와 최소 30,259개(평균 36,129개)의 단어 출현형과 최대 4,477개와 최소 3,639개(평균 4,070개)의 단어 유형이 사용된 9개의 교과서 하위 코퍼스로 된 325,163개 단어의 코퍼스인 것에 비해, 후자는 최대 6,701개와 최소 6,555개(평균 6,622개)의 단어 출현형과 최대 2,019개와 최소

1,940개(평균 1,992개)의 단어 유형이 사용된 3개의 수능 시험 하위 코퍼스로 된 19,866개 단어의 코퍼스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영어II 교과서 코퍼스에서의 용례지수를 토대로 36개의 접사를 정하는 과정에서 용례지수의 최소 임계치를 350으로 정하였다. 용례지수의 순위가 35위인 접사 *-ly*(leisurely)의 용례지수가 345로 바로 앞 순위의 접사 *-ary*의 용례지수 378과 두드러진 차를 보여 이 두 용례지수의 사이에서 최소 임계치를 정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36개의 접사 목록에서 *-ary*보다 앞선 순위의 *-ition*과 *-an*이 제외되고 후순위의 *-th*(36위), *mis-*(41위), *-ism*(44위), *-ish*(62위)가 포함된 이유는 무엇인가? 먼저, *-an*은 인명이나 지명에 붙어 '~에 속하는[관계가 있는] (사람, 언어 등)'이라는 뜻을 더해 주는 접사로 고유 형용사 또는 고유 명사를 만드는 데 사용되므로 목록에서 제외하였다. 동사를 명사로 전환하는 *-ition*은 Bauer와 Nation(1993)의 수준 6 접사로 불규칙적인 어근의 변화를 초래하며(*admonition, apparition, nutrition*), 우리 학생들의 수준에서는 *addition, competition, definition, exposition*(또는 어근이 *-pose*로 끝나는 다른 단어들), *repetition*에서만 볼 수 있으므로 목록에 포함하는 것이 학습자에게 별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더군다나, 역시 수준 6 접사로 같은 기능을 하지만 용례지수가 3위인 *-ion*이 있기 때문에 이 둘을 목록에 포함할 수는 없다. 그렇게 하는 것은 파생에 관한 지식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높다. 나머지 후순위의 접사 4개를 목록에 포함한 이유는 기본 어휘 목록의 대표형을 정하는 데에 용례지수뿐만 아니라 친숙도와 같은 다른 요인도 고려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주의, ~의 품' 또는 '~의 상태'를 뜻하는 *-ism*은 *socialism*과 *socialist*의 쌍에서 알 수 있듯이 흔히 *-ist*와 관련된 것으로 여겨지고 *-ist*의 용례지수가 영어II 교과서 코퍼스에서 13위로 상위에 있어서 36개의 접사 중의 하나로 포함하였다.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을 토대로 제작된 5종의 초등학교 5~6학년군 영어 교과서로 만들어진 코퍼스에서의 파생 접사의 용례지수를 조사한 이현우와 주형미(2021)에 따르면, 28개의 파생 접사 가운데 *-th*의 용례지수가 6,920으로 가장 높았다. 이 결과는 아마도 이들 교과서에서 영어의 서수 표현을 집중적으로 다루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이현우와 주형미(2021)는 또한 5종의 중1 영어 교과서로 코퍼스를 만들어 이 코퍼스에서의 파생 접사의 용례지수를 산출했다. 그 결과, *mis-*가 34개의 파생 접사 가운데 순위가 19위였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고려하면, *-th*와 *mis-* 그리고 *childish, foolish, stylish* 등의 단어에 사용되는 *-ish*를 36개의 접사 목록에 포함하는 것이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끝으로, Carroll(1970)의 용례지수 U_m 에 의해 정한 2022 기본 어휘 지침의 36개 파생 접사 목록은 이현우(2020)가 빈도, 범위, 분산에 의해 정한 영어 I 교과서의 대표적인 파생 접사 30개를 거의 대부분 포함하고 있다. 단지, *-an, -ward, -ition, -ess, -en*(widen)만이 포함되지 않았다.

4.3 기본 어휘 선정 및 분류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기본 어휘 목록은 3,000개의 단어 군을 800-1,200-1,000개의 세 그룹으로 제시하고 있다. 아래에서 보듯이, 이 세 그룹의 단어 군은 2015 기본 어휘 지침의 근원어 200개와 기본 어휘 3,000개 그리고 더 이상 기본 어휘나 새 학습 어휘에서 먼체가 되지

않는 계절명 4개, 기본 기수(0~13, 20, 30) 16개 그리고 기본 서수(1th~3rd, 21th~23rd) 6개 등 3,226개의 단어 군으로부터 추려낸 것과 기본 어휘로 추가된 새 어휘로 구성되었다. 아래에서 어떤 방법과 절차를 거쳐 이들 그룹의 어휘를 확정하였는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초등학교에서 사용하기를 권장하는 단어 군은 800개로 다음 조건 중의 하나를 만족한다.

- 첫째,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서 초등학교에서의 사용을 권장하는 단어 군 800개 중에서 *BNC/COCA Level 6 word family lists*의 1st 1000 목록과 *NGSL*의 1,000번째 순위 내에 있는 단어 군(589개) 또는 초등학생에게 친숙한 주제나 소재와 관련된 단어 군(82개)
- 둘째, 200개의 근원어 중에서 초등학생에게 더 적합한 단어 군(99개)
- 셋째, 기본 기수 및 서수와 계절명 단어 군(26개)
- 넷째, 새로 추가된 4개의 단어 군(helmet, hike, life, rose)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서 초등학교에서 사용하기를 권장하는 기본 어휘로 초등학생에게 친숙한 주제나 소재와 관련된 82개의 단어 군과 200개의 근원어 중에서 초등학생에게 더 적합한 99개의 어휘는 용례지수가 낮아 기존의 기본 어휘 목록에서 낮은 순위를 차지한다. 하지만 이들 어휘는 초등학교 학생들의 영어 L2 수준과 발달 과정을 고려하면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공통과목에서 사용하기를 권장하는 단어 군은 1,200개로 다음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한다.

- 첫째,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서 초등학교에서의 사용을 권장하는 단어 군 800개 중에서 중학생에게 더 적합한 단어 군(102개)
- 둘째, 200개의 근원어 중에서 중학생에게 더 적합한 단어 군(57개)
- 셋째,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그 외 기본 어휘 중에서 *BNC/COCA Level 6 word family lists*의 1st 1000 목록에 있는 단어 군(303개), *BNC/COCA Level 6 word family lists*의 2nd 1000 목록에 있는 단어 군(621개), Nation(2006)에서 언급된 *BNC 14,000 word lists*의 1st 1000 목록에 있는 단어 군(24개), *BNC 14,000 word lists*의 2nd 1000 목록에 있는 단어 군(61개), 중학교 영어와 공통 영어에 더 적합한 단어 군(19개)
- 넷째, 새로 추가된 13개의 단어 군(advice, analysis, belief, breath, choice, common, distance, emphasize, evidence, knowledge, relief, success, zero)

공통과목을 제외한 일반 선택 과정과 그 이상의 과정에서 사용하기를 권장하는 단어 군은 1,000개로 다음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한다.

- 첫째,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기본 어휘 중 초등과정에 사용하기를 권장하는 단어 군 800개 중에서 고등학생에게 더 적합한 단어 군(1개: academy)
- 둘째, 200개의 근원어 중에서 고등학생에게 더 적합한 단어 군(10개: drill, elite, fiction, gallery, harmony, highlight, interior, terror, vaccine, virus)

셋째,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기본 어휘 중 진로 선택 및 전문 교과 I 에서 사용하기를 권장하는 단어 군(338개)

넷째,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기본 어휘 중 나머지 단어 군(647개)

다섯째, 새로 추가된 4개의 단어 군(coupon, distinct, distinguish, hierarchy)

위 두 그룹의 단어 군을 정하는 과정에서 원래 중등 과정(고등학교 공통과목 포함)에서 사용하기를 권장하는 단어 군에서 고등 과정에서 사용하기를 권장하는 단어 군으로 바뀐 것과 역으로 바뀐 것이 있는데, 이들은 아래 표와 같다.

고등 과정에서 중등 과정으로		중등 과정에서 고등 과정으로	
단어	U_m	단어	U_m
climate	34.7	abuse	0
donate	108.5	agency	0.7
greet	63.3	apparent	1.4
guilt	9.6	assure	0.4
hug	19	colleague	1.6
invent	319.7	commit	0
knowledge	32.9	corporate	0.8
mushroom	9.3	entry	0.9
pepper	27.2	extent	0.6
pitch	7	facility	2.3
pork	15.9	initial	1.6
powder	18.4	interior	0.1
quote	29.6	murder	0.1
shelter	24.2	owe	2.2
spray	7.7	scheme	0
stir	6	status	0
sweep	10.8	terror	0
uniform	105.3	vaccine	0
volunteer	494.5	virus	0.9
whale	48.3	weird	0.1
whisper	8.2	witness	0

*BNC/COCA Level 6 word family lists*에서의 순위로 정했다면, 위 표의 왼쪽 열과 오른쪽 열에 있는 단어는 각각 고등 과정과 중등 과정에서 학습하기를 권장하는 단어들이었다. 하지만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을 토대로 제작된 모든 중학교 교과서와 고등학교 공통 영어 교과서로 코퍼스를 만들어 이들 단어의 용례지수 U_m 을 조사한 결과, 왼쪽 열의 단어는 용례지수가 6~494.5이고 오른쪽 열의 단어는 0~2.3이다. 이는 중학교 영어 교과서와 고등학교 영어 공통

영어 교과서에서 전자의 단어가 상당히 사용되었지만, 후자의 단어가 거의 사용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전자와 후자의 단어가 속하는 그룹이 뒤바뀌게 되었다.

5. 논의 및 결론

본 논문은 2015 기본 어휘 지침의 기술상의 문제점과 이론적인 문제점을 논하면서, 이들 문제점이 2022 기본 어휘 지침에서 어떻게 해결되었는지를 설명하였다. 후자의 지침에서 기본 어휘가 영어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 달성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3,000개의 단어로 정의됨에 따라 이들 어휘가 영어과 학습과 평가에서 공히 일정 수준 이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제시되었다. 2022 기본 어휘 지침은 또한 어휘의 기본 단위로 단어 군을 일관되게 사용함으로써 학생들이 기본 어휘 목록의 대표형과 대표형의 굴절과 파생 변이형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외래어의 근원어로 취급하여 학습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과도한 200개의 어휘 중에서 173개의 어휘를 기본 어휘 목록에 포함하여 이들 어휘에 대한 학습 강화를 도모하였다. 우리 학생들의 인지적, 언어적 발달 과정을 고려하여, 3,000개의 기본 어휘를 초등학교에서 사용하기를 권장하는 800개의 단어 군, 중학교와 고등학교 공통과목에서 사용하기를 권장하는 1,200개의 단어 군 그리고 그 외의 과목에서 사용하기를 권장하는 1,000개의 단어 군으로 구분하고, 학생들의 영어 어휘 지식의 깊이에 맞게 단어 군에 속하는 파생어를 만드는 접사를 36개로 제한하였다.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근원어 200개와 기본 어휘 3,000개 중에서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기본 어휘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다음과 같다.⁷

첫째, 근원어 27개: amateur, arch, bonus, cabinet, calcium, campus, carol, diamond, echo, feminist, gown, hormone, kangaroo, kiwi, jazz, lobby, manual, panda, plug, rehearsal, rugby, scenario, seminar, sketch, stereo, veil, yacht

둘째, 초등학교에서의 사용을 권장하는 단어 7개: bathroom, bedroom, birthday, classroom, bicycle(bike로 대체), cloth(clothes로 대체), teen(이미 teenage가 있어 삭제)

셋째, 진로 선택 및 전문 교과 I 에서 사용하기를 권장하는 단어 37개: acquaint, affiliate, amplify, archive, attorney, bishop, brew, caption, cathedral, commence, compulsory, consensus, creek, degrade, equate, fluid, glimpse, horn, hostage, judicial, nanny, nun, patrol, pope, premier, salon, scrub, shield, shrink, slaughter, sniff, spite, testify, veteran, wagon, warrior, widow

넷째, 그 외의 단어 55개: aircraft, cupboard, nobody, widespread, activate, acute, aisle, ash, attain, autobiography, automobile, avenue, awesome, barn, berry, bible, bride,

⁷기본 어휘나 새로운 학습 어휘가 될 수 없는 단어인 *A.M./a.m.*, *P.M./p.m.*, *percent*와 대표형의 파생어인 *computer*, *data*, *different*, *eraser*, *interview*, *media*, *waiter*와 같은 단어는 아래에서 배제되었다.

bullet, cab, cabin, chemistry, couch, cowboy, cricket, dam, distant, episode, escort, etc/et cetera, eve, evident, fist, forum, genre, haste, hip, initiate, jet, lounge, meantime, multiply, nonsense, olive, packet, precious, scold, silk, solo, straw, tattoo, tobacco, trophy, trouser, tutor, voyage

이상의 126개 단어가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기본 어휘 목록에서 빠진 것들이다. 이 중에는 합성어로 *bathroom, bedroom, birthday, classroom, aircraft, cupboard, nobody*가 있다. 2022 기본 어휘 지침은 합성어를 파생어처럼 취급하여 단어 군에 포함할지에 관해서 명시적인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금년 말에 있을 교과서 검정 심사를 위한 교과서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 기준에서는 이에 관한 규정이 명시될 것으로 보인다. (상)사전등재형 대신에 제한된 수의 파생어를 포함하는 단어 군을 단어의 기본 단위로 한 이유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어휘 학습을 촉진하기 위한 것처럼 합성어의 일부를 대표형의 변이형으로 인정함으로써 문맥적 정보와 어형론적 정보를 통해 어휘를 학습하는 능력을 끌어올려 줄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합성어를 친숙한 것과 새로운(*novel*) 것 그리고 의미 조합이 투명한(*semantically transparent*) 것과 불투명한(*opaque*) 것으로 나누어 살펴본 Brusnighan과 Folk(2012)의 연구 결과를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이들은 독자들이 정보 전달의 문맥에서 의미 조합이 불투명한 새 합성어보다 의미 조합이 투명한 새 합성어를 분석하는 데 시간이 덜 걸린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 밝히고, 능숙한 독자는 새 합성어를 자동적으로 분해하며 새 영어 합성어의 의미를 도출하는 독자의 능력은 문맥적 정보원과 어형론적 정보원을 한데로 모으는 것으로부터 도움을 받는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의 연구는 영어 교과서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 기준에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시사한다.

의미 조합이 투명한 합성어는 구성소가 모두 기본 어휘이면 대표형의 변이형으로 간주한다. 단, 구성소가 전치사인 경우는 제외한다.

[예시]

<대표형의 변이형으로 취급하는 합성어>

battleship, birthday, headache, mailbox, railroad, sunlight, toothbrush, everyone, something, nobody, high-speed, long-term, well-trained, ...

<대표형의 변이형으로 취급하지 않는 합성어>

babysit, blackboard, deadline, greenhouse, horseshoe, livingroom, proofread, ...
one-way, check-in, word-of-mouth, ...
downgrade, outgrow, overact, underbridge, upcycle, ...

논문을 마치면서, 다음 두 가지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첫째, 2015 기본 어휘 지침의 많은 문제점이 2022 기본 어휘 지침에서 해결되었지만, 후자가 결코 완전한 것은 아니다. 엄격히 말해, 2015 기본 어휘 지침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이 해결되었다고 할 수 없다. 기본 어휘와 대표 접사의 선정이 신뢰할 수 있는 독자적인 코퍼스의 구축에 의해서 이뤄지지 못하고 기존의 여러 코퍼스에서 부분적으로 떼어내 만든 코퍼스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기본 어휘 목록 제작에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제작된 교과서의 자료로 만든 코퍼스가 부분적으로 활용되었지만, 이는 결코 이상적인 모습이 아니다. 다음 교육과정의 기본 어휘를 정할 때에는 이 두 교육과정을 토대로 만들어진 교과서의 자료로만 구축된 코퍼스를 중점적으로 활용하고 해외의 기본 어휘 목록을 참고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된다. 두 번째 제언은 단어 군에 포함되는 파생어를 만드는 접사를 36개의 접사로 제한했지만, 우리 학생들의 어형론적 지식을 고려하면 이보다 더 제한하는 것이 옳지 않았는지에 관한 것이다.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기본 어휘는 약 1.9만개의 단어 유형을 대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2015와 2009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기본 어휘가 각각 약 4.5만개와 1.4만개를 대표한 것을 고려하면, 파생 접사의 수를 24개로 제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파생 접사에 관한 제한이 전혀 없다가 급격하게 제한을 두다 보면 교과서 제작이나 학교 현장에서 예기치 않은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현재와 같이 36개로 제한한 것이다. 단어 군이 허용하는 최대 파생 접사 수가 어떻게 되어야 최선인지의 문제는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서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고 여겨진다.

참고 문헌

- 교육과학기술부(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11. 영어과 교육과정(*English Curriculum*),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 [별책 14].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Seoul: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 2015. 영어과 교육과정(*English Curriculum*), 교육부 고시 제 2015-74호 [별책 14]. 서울: 교육부(Seoul: Ministry of Education).
-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 2022. 영어과 교육과정(*English Curriculum*), 교육부 고시 제 2022-33호 [별책 14]. 서울: 교육부(Seoul: Ministry of Education).
- 권혁승, 박은성, 김현정, 오건석, 강신자, 윤소영(Kwon, H., E. Park, H. Kim, G. Oh, S. Kang and S. Yoon). 2018. *High School English I*. 서울: (주) 동아출판 (Seoul: DongA).
- 권혁승, 박은성, 김현정, 오건석, 강신자, 윤소영(Kwon, H., E. Park, H. Kim, G. Oh, S. Kang and S. Yoon). 2019. *High School English II*. 서울: (주) 동아출판 (Seoul: DongA).
- 김길중, Putlack Michael Aaron, 임정원, 장진화, 김건우, 김나현 외(K. Kim, P. M. Aaron, J. Lim, J. Jang, K. Kim, N. Kim et al.). 2019. *High School English II*. 서울: (주) 다락원(Seoul: Darakwon).
- 김성곤, 서성기, 이석영, 최동석, 강용구, 김성애 외(Kim, S., S. Seo, S. Lee, D. Choi, Y. Kang. S. Kim, et. al.). 2018. *Middle School English I*. 서울: (주)엔이능률(Seoul: NE Neungyule).
- 김성곤, 윤진호, 구은영, 전형주, 서정환, 이후고 외(Kim, S., J. Yoon, E. Goo, H. Jeon, J. Seo, H. Lee et al.). 2018. *High School English I*. 서울: (주) 엔이 능률(Seoul: Neungyule).
- 김성곤, 윤진호, 구은영, 전형주, 서정환, 이후고 외(Kim, S., J. Yoon, E. Goo, H. Jeon, J. Seo, H. Lee et al.). 2019. *High School English II*. 서울: (주) 엔이 능률(Seoul: Neungyule).

- 김진완, 황종배, Judy Yin, 이윤희, 신미경, 조성옥 외(Kim, J., J. Hwang, J. Yin, Y. Lee, M. Shin, S. Jeo. et. al.). 2018. *Middle School English 1*. 서울: (주)비상교육(Seoul: Visang).
- 김혜리, 황창녕, 강영옥, 임희진, 경지숙, 김태영 외(Kim, H., C. Hwang, Y. Kang, H. Lim, J. Kyeong, T. Kim. et. al.). 2018a. *Elementary School English 3*. 서울: (주)와이비엠(Seoul: YBM).
- 김혜리, 황창녕, 강영옥, 임희진, 경지숙, 김태영 외(Kim, H., C. Hwang, Y. Kang, H. Lim, J. Kyeong, T. Kim. et. al.). 2018b. *Elementary School English 4*. 서울: (주)와이비엠(Seoul: YBM).
- 김혜리, 황창녕, 강영옥, 임희진, 경지숙, 김태영 외(Kim, H., C. Hwang, Y. Kang, H. Lim, J. Kyeong, T. Kim. et. al.). 2018c. *Elementary School English 5*. 서울: (주)와이비엠(Seoul: YBM).
- 김혜리, 황창녕, 강영옥, 임희진, 경지숙, 김태영 외(Kim, H., C. Hwang, Y. Kang, H. Lim, J. Kyeong, T. Kim. et. al.). 2018d. *Elementary School English 6*. 서울: (주)와이비엠(Seoul: YBM).
- 민찬규, 정현성, 이상기, 김윤규, 나우철, 안효선 외(Min, C., H. Jung, S. Lee, Y. Kim, W. Na, H. Ahn et al.). 2019. *High School English II*. 서울: (주)지학사(Seoul: Jihak).
- 박기화, 안경자, 홍진영, 김혜원, 임은화, 정고은 외(Park, G., K. Ahn, J. Hong, E. Lim, G. Jung. et. al.). 2018a. *Elementary School English 3*. 서울: (주)동아출판(Seoul: DongA).
- 박기화, 안경자, 홍진영, 김혜원, 임은화, 정고은 외(Park, G., K. Ahn, J. Hong, E. Lim, G. Jung. et. al.). 2018b. *Elementary School English 4*. 서울: (주)동아출판(Seoul: DongA).
- 박기화, 안경자, 홍진영, 김혜원, 임은화, 정고은 외(Park, G., K. Ahn, J. Hong, E. Lim, G. Jung. et. al.). 2018c. *Elementary School English 5*. 서울: (주)동아출판(Seoul: DongA).
- 박기화, 안경자, 홍진영, 김혜원, 임은화, 정고은 외(Park, G., K. Ahn, J. Hong, E. Lim, G. Jung. et. al.). 2018d. *Elementary School English 6*. 서울: (주)동아출판(Seoul: DongA).
- 박준언, 김명희, 김수연, 박병륜, 양소영, 최희진(Park, J., M. Kim, S. Kim, B. Park, S. Yang and H. Choi). 2018. *Middle School English 1*. 서울: (주)와이비엠(Seoul: YBM).
- 박준언, 윤병우, 김선형, 최선영, 최지영, 김진수 외(Park, J., B. Yoon, S. Kim, S. Choi, J. Choi, J. Kim et al.). 2018. *High School English I*. 서울: (주)와이비엠(Seoul: YBM).
- 박준언, 윤병우, 김선형, 최선영, 최지영, 김진수 외(Park, J., B. Yoon, S. Kim, S. Choi, J. Choi, J. Kim et al.). 2019. *High School English II*. 서울: (주)와이비엠(Seoul: YBM).
- 윤정미, 이희경, 강은경, 송형호, 장성욱, 염미선 외(Yoon, J., H. Lee, E. Kang, H. Song, S. Jang and M. Yeom, et. al.). 2018. *Middle School English 1*. 서울: (주)동아출판(Seoul: DongA).
- 이문복, 신동광(Lee, M. and D. Shin). 2015. 2015 영어과 교육과정 기본 어휘 목록 개(Development of the Korean Basic English Word List of the 2015 Revised National Curriculum of English). 《영어교과교육》(*Journal of the Korea English Education Society*) 14-4, 115-134.
- 이재근, 김진석, 나경희, 이동주, Judy Yin, 권민지 외(Lee, J., J. Kim, K. Na, D. Lee, J. Yin, M. Kwon, et al.). 2018a. *Elementary School English 3*. 서울: (주)대교(Seoul: Daekyo).

- 이재근, 김진석, 나경희, 이동주, Judy Yin, 권민지 외(Lee, J., J. Kim, K. Na, D. Lee, J. Yin, M, Kwon, et al.). 2018b. *Elementary School English 4*. 서울: (주)대교(Seoul: Daekyo).
- 이재근, 김진석, 나경희, 이동주, Judy Yin, 권민지 외(Lee, J., J. Kim, K. Na, D. Lee, J. Yin, M, Kwon, et al.). 2019a. *Elementary School English 5*. 서울: (주)대교(Seoul: Daekyo).
- 이재근, 김진석, 나경희, 이동주, Judy Yin, 권민지 외(Lee, J., J. Kim, K. Na, D. Lee, J. Yin, M, Kwon, et al.). 2019b. *Elementary School English 6*. 서울: (주)대교(Seoul: Daekyo).
- 이재영, 문안나, 오영일, 조수경, 이윤정, 김정현 외(Lee, J. A. Moon, Y. Oh, S. Cho, Y. Lee, J. Kim et al.). 2018. *High School English I*. 서울: (주)천재교육(Seoul: Chunjae).
- 이재영, 문안나, 오영일, 조수경, 이윤정, 김정현 외(Lee, J. A. Moon, Y. Oh, S. Cho, Y. Lee, J. Kim et al.). 2019. *High School English II*. 서울: (주)천재교육(Seoul: Chunjae).
- 이재영, 안병규, 오준일, 배태일, 김순천, 박성근 외(Lee, J., B. Ahn, J. Oh, T. Bae, S. Kim, S. Park et al.). 2018. *Middle School English I*. 서울: (주)천재교육(Seoul: Chunjae).
- 이현우(Lee, H.). 2020.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기반한 영어 I 교과서의 어형론적 복잡성(Morphological complexity in English I textbooks based on the 2015 Revised National Curriculum). *중등영어교육(Secondary English Education)* 13(1), 3-24.
- 이현우(Lee, H.). 2022.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영역에 나타난 파생 접사에 관한 코퍼스 연구: 기본 어휘 관련 지침을 중심으로(A corpus study of derivative affixes in the English Section of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s: With focus on the Guide on Basic Vocabulary). *중등영어교육(Secondary English Education)* 15(1), 89-108.
- 이현우, 주형미(Lee, H. and H. M. Joo). 2021. 코퍼스 기반 영어 접사의 등급화: 초등영어 교과서를 중심으로(A corpus-based gradation of English affixes: With reference to elementary School English textbooks). *영어학(Korean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21, 1004-1026.
- 전재영, 이현우(Jun, J. and H. Lee). 2022.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기반한 영어 II 교과서에 나타난 파생 접사 연구(A study of derivative affixes in the High School English II textbooks based on the 2015 Revised National Curriculum). *중등영어교육(Secondary English Education)* 15(1), 3-24.
- 주형미, 김미경, 김성혜, 배주경 외(Joo, H. M., M. Kim, S. Kim, J-K. Pae, et al.). 2022.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 시안(최종안) 개발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2022 Revised National Curriculum of English: Part 2*). 서울: 교육부(Seoul: Ministry of Education).
- 최인철, 서원화, 이윤경, 김주혜, 전예지, 라문선 외(Choi, I., W. Seo, Y. Lee, J. Kim, Y. Jeon, M. Rha et al.). 2019. *High School English II*. 서울: (주)금성출판사(Seoul: Kumsung).
- 최희경, 서지연, 문은혜, 이미화, 윤지영, 박미애 외(Choi, H., J. Seo, E. Moon, M. Lee, J. Yun, M, Park, et al.). 2018a. *Elementary School English 3*. 서울: (주)와이비엠(Seoul: YBM).
- 최희경, 서지연, 문은혜, 이미화, 윤지영, 박미애 외(Choi, H., J. Seo, E. Moon, M. Lee, J. Yun, M, Park, et al.). 2018b. *Elementary School English 4*. 서울: (주)와이비엠(Seoul: YBM).

- 최희경, 서지연, 문은혜, 이미화, 윤지영, 박미애 외(Choi. H., J. Seo, E. Moon, M. Lee, J. Yun, M, Park, et. al). 2019a. *Elementary School English 5*. 서울: (주)와이비엠(Seoul: YBM).
- 최희경, 서지연, 문은혜, 이미화, 윤지영, 박미애 외(Choi. H., J. Seo, E. Moon, M. Lee, J. Yun, M, Park, et. al). 2019b. *Elementary School English 6*. 서울: (주)와이비엠(Seoul: YBM).
- 한상호, 정은귀, 김예리, 김재란, 이보희, 이혜은. 2019. *High School English II*. 서울: (주) 와이비엠 텍스트(Seoul: YBM Text).
- 함순애, 이양순, 김현아, 박수경, 박장웅, 안소연 외(Ham, S., Y. Lee, H. Kim, S. Park, J. Park, S. An, et. al.). 2018a. *Elementary School English 3*. 서울: (주)천재교육(Seoul: Chunjae).
- 함순애, 이양순, 김현아, 박수경, 박장웅, 안소연 외(Ham, S., Y. Lee, H. Kim, S. Park, J. Park, S. An, et. al.). 2018b. *Elementary School English 4*. 서울: (주)천재교육(Seoul: Chunjae).
- 함순애, 이양순, 김현아, 박수경, 박장웅, 안소연 외(Ham, S., Y. Lee, H. Kim, S. Park, J. Park, S. An, et. al.). 2019a. *Elementary School English 5*. 서울: (주)천재교육(Seoul: Chunjae).
- 함순애, 이양순, 김현아, 박수경, 박장웅, 안소연 외(Ham, S., Y. Lee, H. Kim, S. Park, J. Park, S. An, et. al.). 2019b. *Elementary School English 6*. 서울: (주)천재교육(Seoul: Chunjae).
- 홍민표, 안현기, Pak Richard, O'Flaherty David Desmond, 조금희(Hong, M., H. Ahn, P. Rchard, O. D. Desmond, G. Cho). 2019. *High School English II*. 서울: (주)비상교육(Seoul: Visang).
- 홍민표, 안현기, 박연미, 김정태, 장현욱, 신정섭 외(Hong, M., H. Ahn, Y. Park, J. Kim, H. Jang, J. Shin et al.). 2018. *High School English I*. 서울: (주)비상교육(Seoul: Visang).
- Bauer, L. and I. S. P. Nation. 1993. Word families. *International Journal of Lexicography* 6(4), 253-79.
- Brezina, V. and D. Gablasova. 2015. Is there a core general vocabulary? Introducing the New General Service List. *Applied Linguistics* 36(1), 1-22.
- Browne, C., B. Culligan, and J. Phillips. 2013. *The New General Service List*. Retrieved October 10, 2022 from <http://www.newgeneralservicelist.org/>
- Brown, D. 2018. Examining the word family through word lists. *Vocabulary Learning and Instruction* 7(1), 51-65.
- Brusnighan, S. M. and J. R. Folk. 2012. Combining contextual and morphemic cues is beneficial during incidental vocabulary acquisition: Semantic transparency in novel compound word processing. *Reading Research Quarterly* 47(2), 172-190.
- Carroll, J. B. 1970. An alternative to Juilland's usage coefficient for lexical frequencies. *ETS Research Bulletin Series*, i-15. <https://doi.org/10.1002/j.2333-8504.1970.tb00778.x>
- Carroll, J. B., P. Davies and H. Richman. 1971. *Word Frequency Book*. New York: Houghton Mifflin.
- Coady, J. 1997. L2 vocabulary acquisition through extensive reading. In J. Coady and T. Huckin, eds., *Second Language Vocabulary Acquisition: A Rationale for Pedagogy*, 225-237.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oxhead, A. 1998. *An Academic Word List*. (English Language Institute Occasional Publication No. 18). Wellington, New Zealand: Victoria University of Wellington.

- Davies, M. 2012. Expanding horizons in historical linguistics with the 400-million word Corpus of Historical American English. *Corpora* 7(2), 121-157.
- Gardner, D. and M. Davies. 2014. A new academic vocabulary list. *Applied Linguistics* 35(3), 305-327.
- Juilland, A. G. and E. Chang-Rodríguez. 1964. *Frequency Dictionary of Spanish Words*. The Hague: Mouton & Co.
- Laufer, B. 1992. Reading in a foreign language: how does L2 lexical knowledge interact with the reader's general academic ability. *Journal of Research in Reading* 15(2), 95-103.
- Lee, J. 2020. On the source words for loanwords of the 2015 Revised National Curriculum of English. *Korean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20, 851-880.
- Lee, J. 2021. A corpus-based study of the source words for Loanwords of the 2015 Revised National Curriculum of English. *Journal of Linguistic Studies* 20, 177-204.
- Leech, G., P. Rayson and A. Wilson. 2001. *Word Frequencies in Written and Spoken English*. Harlow: Longman.
- Masson M.-E. 2013. How L1 loanwords can create a false sense of familiarity with L2 vocabulary meaning and usage. *Vocabulary Learning and Instruction* 2(1), 8-14.
- McLean, S. 2017. Evidence for the adoption of the flemma as an appropriate word counting unit. *Applied Linguistics* 39(6), 823-845.
- Mochizuki, M. and Aizawa, K. 2000. An affix acquisition order for EFL learners: An exploratory study. *System* 28(2), 291-304.
- Na, L. and I. S. P. Nation. 1985. Factors affecting guessing vocabulary in context. *RELC Journal* 16(1), 33-42.
- Nation, I. S. P. 2001. *Learning Vocabulary in Another Langu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Nation, I. S. P. 2006. How large a vocabulary is needed for reading and listening? *The Canadian Modern Language Review* 63(1), 59-82.
- Nation, I. S. P. 2017a. *The BNC/COCA Level 6 word family lists*. Retrieved April 25, 2022 from <http://www.victoria.ac.nz/lals/staff/paul-nation.aspx>.
- Nation, I. S. P. 2017b. *The BNC/COCA Level 3 partial word family lists*. Retrieved April 25, 2022 from <http://www.victoria.ac.nz/lals/staff/paul-nation.aspx>.
- Nation, P. and R. Waring. 1997. Vocabulary size, text coverage and word lists. In N. Schmitt and M. McCarthy, eds., *Vocabulary: Description, Acquisition and Pedagogy*, 237-257.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chmitt, N. and P. Meara. 1997. Researching vocabulary through a word knowledge framework: Word associations and verbal suffixes. *Stud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19(1), 17-36.
- Schmitt, N. and C. B. Zimmermann. 2002. Derivative word forms: What do learners know? *TESOL Quarterly* 36(2), 145-71.

- Stoeckel, T., T. Ishii and P. Bennett. 2020. Is the lemma more appropriate than the flemma as a word counting unit? *Applied Linguistics* 41(4), 601-606.
- West, M. 1953. *A General Service List of English Words*. London: Longman, Green.
- White, T. G., M. A. Power and S. White. 1989. Morphological analysis: Implications for teaching and understanding vocabulary growth. *Reading Research Quarterly* 24(3), 283-304.

예시 언어(Examples in): 영어(English)

적용 가능 언어(Applicable Languages): 영어(English)

적용 가능 수준(Applicable Level): 전체(All)